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수출상담회서 '큰 실적'

도내 기업들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 1대1로 진행한 수출상담회가 2백만 불 이상의 수출 계약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해외 유망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 간의 우수상품 수출박람회(JB-FAIR)를 열고 해외 바이어 5개사와 도내 중소기업 6개사 간 203.5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경진원은 지난 6월부터 베트남·인도 해외 통상 거점 센터와 협업기관인 KOTRA, 무역협회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어를 발굴하고, 도내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매칭을 추진, 2024년도 JB-FAIR에 해외 바이어 102개사와 도내기업 179개사의 참여한 수출상담을 펼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얻게 됐다.

또한, 이번 상담회 이후에도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수출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오기는 "이번 수출계약이 체결될 수 있

도내 기업 6곳, 해외 바이어 5개사와 203만5000불 수출 계약 전북자치도, 6월부터 바이어 발굴·기업 매칭에 주력 '결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해외 유망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 간의 우수상품 수출박람회(JB-FAIR)를 열고 해외 바이어 5개사와 도내 중소기업 6개사 간 203.5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었던 이유는, 지난 무역사절단에 참여해 만났던 바이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준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진원의

충직한 사후 관리 때문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원스킨 화장품도 "일본시장 진출

을 위해 바이어와 계약을 추진하던 중 통상 닥터의 컨설팅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수출계약은 우리 도내 기업이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를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을 들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도내 기업들이 세계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상담회 이후에도 상담 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JB-FAIR에 참가한 도내기업들의 사후 조치를 위해 오는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수출기업 교류회를 운영, 계약 성사를 기업별로 필요한 부분(관세, 인증취득 등)에 대한 수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를 통해 진행한 상담 건에 대해 계약 추진 현황을 확인하는 등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후 관리에도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따뜻하고 아름다운 환대에 감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한비친구 다례봉사단' 재외동포 경제인들에 미소와 전통의 향기 전해 '큰 호응'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지난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을 맞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일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며 힘을 보탰다.

전북센터와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회장 박금옥), 군산시 원불교 봉공회(사무국장 박효숙)는 전북을 찾은 재외동포 경제인들을 환영하기 위해 '한비 친구 다례봉사단'을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전북대학교 진수당 1층 로비에서 운영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식의 고장인 전북의 풍미를 전하기 위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봉사자들이 생화로 꾸민 테이블 위에 정성껏 다과를 마련했다.

다기에는 오미자차, 식혜, 연일차 등 전통차가 담겼고, 제철 과일 꼬치와 지역에서 수확한 깨와 땅콩으로 만든 한과,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3색 송편과 녹두 인절미도 함께 차려졌다. 이렇게 준비된 다과

는 고국을 찾은 한상인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전통의 향기를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센터는 성공적인 손님맞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대회장을 답사하고, 자원봉사 관계자 및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해왔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하기 위해 발효차는 고창 명인이, 송편과 인절미는 군산 전통떡집에서 정성껏 준비했으며, 다례 봉사는 전주와

군산의 전북 여성벤처기업인들과 원불교회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러한 준비는 16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례 봉사를 접한 한 재외동포는 "따뜻하고 정성 어린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거대한 컨벤션 시설이 없어도, 세심하게 준비해주신 온정과 따뜻한 마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어 진심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매력에 이끌려 다시 찾아오고 싶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여한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있는 자원봉사자 '한비 친구'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한비친구'들은 21일부터 24일까지 진절과 배려를 바탕으로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들은 △공식 행사 운영 △גי업전시관 안내 △속박시설 및 역·터미널 셔틀버스 안내 △보조주차장 및 내부순환 셔틀버스 안내 △안내부스 운영 지원 등 총 11개 분야를 운영하여 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신고 독려... 올해까지 신고해야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2025년부터 운영 불가 올해까지 인증저감장치 부착시 신고 면제... 미부착 시 개선계획서 필수 제출

전북특별자치도는 관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인증된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스 열펌프(Gas Heat Pump)'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주로 공공기관, 학교 등

에 설치되어 있다.

가스 열펌프는 사용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6월 30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23년 시행되면서 대기 배출시설에 포함됐고, 그에 따라 가스 열펌프를 운영해왔거나 할 예정인 사업장 주는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 기존 미신고 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31일이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운영이 불가하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므로 올해까지 부착을 완료하면 신고가 면제된다.

올해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 및 시군 환경부서에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하고, 서류 제출시 저감 장치 부착 예정이라는 등 개선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면 방지시설 관련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화된 서류로 신고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도내 562개소, 2,469대의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주를 독려하여 도민 생활권 내 초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성료

우수 안전보건인 표창·안전문화 실천 공모전 시상·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로 산업재해 예방 총력

전북자치도와 전북 안전보건네트워크는 23일 익산 원광대 60주년 기념관에서 도내 산업체의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운동목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권현민 전북 안전보건 네트워크 총회장, 황정호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을 비롯한 기

관대표와 건설·제조·서비스업 협의체 대표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로, 도내 산업체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행사는 △우수 안전보건인 표창 △2024년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문 낭독 △안전문화 실천 UCC

및 슬로건 공모전 발표대회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 내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공자 시상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6명, 고용노동부 지청장상 9명,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장상 3명 등 총 21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낭독된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문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UCC 및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주)포스코이앤씨 안전팀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고용노동부 지청장상 4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1명이 추가로 수상했다.

공모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도내 사업장들이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만호 기자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체계 본격 도입

도, 사회복지시설 26곳 대상 인권경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인권경영 역량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각 시설의 인권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과 컨설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며, 도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인권침해 구제 사

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인권 경영 실현을 지원한다.

정호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경영 역량을 강화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16개 공기업·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인권경영체계 구축과 인권 친화적 경영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